

광주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보듬다

제12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 개막

20~29일 문예회관·시내 소극장...금남로 야외 공연도 러시아·佛 등 4개국 17개 작품...개막작 '바나 아저씨'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민중 인권 평화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행사 중 하나다. 올해 연극제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해외 참가 극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등 어느해보다 풍성한 라인업을 준비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제12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20~29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과 예술극장 통, 예린소극장 등 시내 소극장에서 열린다. <표 참조>.

올해 행사에는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17개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대인시장 등에서 공연하는 자유참가작도 5개팀 선정했다. 이영민 극단 까치놀 대표가 예술감독을 맡아 연극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작품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주제는 '아픔이 아픔을 보듬는다'. 큰 아픔을 이겨낸 광주가 인간 본질의 따뜻함을 찾아내고 광주가 겪어온 상처를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발판 삼아 평화를 향해 나가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예산은 4000~5000만원으로 진행되던데서 벗어나 1억 7000만원이 투입됐다. 광주시 지원금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결과다.



러시아 우수리스크 극단 '저녁부터 오후까지'

■ 광주국제평화연극제 공연 일정

날짜	시간	극단	작품	장소
20일	7시30분 3시, 7시30분	중견연극인 창작집단	바나 아저씨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21일	7시30분	까치놀	일어나라 알버트	예린소극장
22일	3시	종이로 만든 배	내 아이에게	충장아트홀
		까치놀	일어나라 알버트	예린소극장
		초인	피리부는 사나이	예술극장 통
24일	7시30분	심리극단 엔카운터, 연인	영여현실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사람사이	피수꾼	씨디아트홀
		후암	칸사이 주먹	예술극장 통
25일	7시30분	발공극장	목이 마르다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사람사이	피수꾼	씨디아트홀
		연극집단 반	집을 떠나며	충장아트홀
26일	7시30분	맥	비나리	예술극장 통
		우수리스크 극단	저녁부터 오후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알-아리	이구역의 미친녀는 나다	씨디아트홀
27일	7시30분	행복한사람들	바이러스 10/2	공연일번지
		알-아리	이구역의 미친녀는 나다	씨디아트홀
		행복한사람들	바이러스 10/2	공연일번지
28일	7시30분	진단래피네	제비	예린소극장
		한국공연예술제작	메멘토모리	예술극장 통
		명품극장	몸으로 쓰는, 봄봄	충장아트홀
29일	3시	에즈코 씨어터	모란동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행복한사람들	바이러스 10/2	공연일번지
		알-아리	이구역의 미친녀는 나다	씨디아트홀
		진단래피네	제비	예린소극장
		에즈코 씨어터	모란동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공식초청작

해외 극단 작품 등 5개 작품이 공식 초청작으로 관객을 만난다. 개막작은 개막작으로 선정된 '바나 아저씨'(20일 오후 7시30분·21일 오후 3시·7시30분)다. 중견연극인 창작집단이 무대에 올리는 안톤 제후의 대표작으로 연출가 이윤택이 블랙코미디로 재해석했다.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기주봉씨를 비롯해 국내 대표 연극 배우 김지숙, 이용녀 등이 출연한다.

심리극단 엔카운터와 극단 연인이 함께 준비한 심리극 '영여 현실'(22일 오후 3시)은 나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 마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심리 치료극이다. 프랑스 발공극장의 '목이 마르다'(24일 오후 7시30분)는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와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 4중주곡 '십자가 위의 일곱 가지 말씀'을 모티브로했다. 프랑스 배우와 '블랙시 라디오'가 함께 공연한다.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립극단극장의 '저녁부터 오후까지'(26일 오후 7시30분)는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모스크바 시내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일본 샌다이에서 활동하는 '에즈코 씨어터'의 '모란 동륜'(28일 오후 7시30분·29일 오후 3시)은 일본에서 유명한 괴담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 매일 밤마다 모란 그림이 그려진 등롱을 손에 들고 찾아오는 유령 이야기를 노래와 댄스, 웃음이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공식 초청작품 공연장은 모두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이다.

◇주제공연작

금남로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심 소극장에서 벌어지며 광주 극단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경기 등에서 모두 12팀이 참여한다.

경기도 광명 극단 총리로 만든 배의 '내 아이에게'(22일 오후 3시 충장아트홀)는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서울 극단 초인의 '피리 소리'(22일 오후 3시 예술극장 통)는 다양한 오브제와 인형을 활용해 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다. 순한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온 권력과 자본의 본질을 설화 양식을 빌려 표현한다.

극단 후임의 '칸사이 주먹'(24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통)은 칸사이 지방에 살고 있는 독립군 후손 강복두와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불범체류자 드미트리, 중국인 손도가 우연히 운봉길 의사의 마지막 처형 사진을 손에 넣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연극집단 반의 '집을 떠나며'(25일 오후 7시30분 충장아트홀)는 제삿날 한자리에 몇년만에 모인 가족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식구의 의미를 묻고 있으며 부산 극단 '맥'의 '비나리'(26일 오후 7시30분)는 저승길 가던 할머니를 통해 영적 세계로 떠나는 작품이다.

그밖에 명품 극단은 김유정의 '봄봄'을 꼭두각시 놀음으로 재해석한 '몸으로 쓰는, 봄봄'(28일 오후 7시30분 충장아트홀)을, 극단 한국공연예술제작은 네



중견연극인 창작집단의 '바나 아저씨'

개의 유니버스로 작품으로 구성된 '메멘토모리'(28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통)를 공연한다.

광주 극단들도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린다. 극단 까치놀이 공연하는 바나 사이먼의 대표작 '일어나라 알버트'(21일 오후 7시30분, 22일 오후 5시·예린소극장)은 흑인 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작품이다.

극단 사람과 사람은 진실의 왜곡이 가져올 수 있는 재앙에 대해 다룬 이강백 작 '피수꾼'(24~25일 오후 7시30분)을 무대에 올리며 극단 알-아리는 이오네스코 작품 '수업' 공연을 준비하는 여배우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이 구역의 미친녀는 나다'(27~28일 오후 7시30분, 29일 오후 3시 씨디아트홀)를 공연한다.

그밖에 극단 '행복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바이러스 √ 10'(27~28일 오후 7시30분, 29일 오후 3시 공연일번지)을, 극단 진단래 피네는 브레히트의 '역적어멈과 그 자식들'을 재해석한 '역적어멈'(28일 오후 7시30분·29일 오후 3시 예린소극장)을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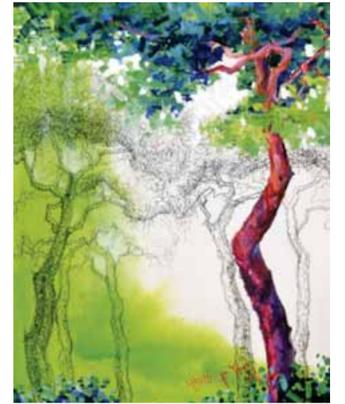
그밖에 자유참가작으로 강한구의 '궁금해?', 창작집단 '뿔'의 '고도를 기다리며', 극단 '랄랄라'의 '돈 키호트' 등이 공연되며 행사 기간 중 소극장 로비에서는 사진작가 윤정씨의 '휴먼다큐프로젝트-평화' 63인 인터뷰 사진전이 열린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주제 공연작 12편을 모두 볼 수 있는 종합관람권(10만원)도 판매한다.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만의 그늘, 자연속으로

박유자 개인전...31일까지 문화갤러리



'자연속으로'

뜨거운 피아벌 아래서 만나는 푸른 소나무 그늘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시인 정호승은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작품에 담아 온 박유자 작가가 31일까지 문화갤러리(광주시 동구 서석동)에서 개인전 '나만의 그늘, 나만의 그늘, 자연 속으로'를 연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선보였던 '사랑합니다' 시리즈를 비롯해 신작 '자연 속으로' 시리즈 등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자연 속으로-열정', '자연 속으로-적송의 봄'은 소나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가 시선을 느껴진다. 붉은 줄기 위로 펼쳐진 초목임, 하얀 여백, 얇게 칠한 청록, 분홍 빛 배경을 통해 시원함이 전해진다. 작가가 산에서 만난 소나무들이다.

'사랑합니다' 속 해바라기는 희망과 사랑을 의미한다. 진분홍, 노랑색으로 진하게 배경을 채우고 꽃 테두리는 펜으로 얇게 표현했다. 가는 줄기 위에 매달린 해바라기 꽃잎은 위태로워 보이지만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정겹다.

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국제여성미술교류전(2013), 영호남 교류전(2012) 등 개인전 15회, 단체전 200회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환경미술협회, 예쁘고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속가능발전과 종교 역할' 세미나

내일 전남대 경영대 CBA홀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과 종교의 역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20일 오후 3~5시 전남대 경영대 1호관 CBA홀.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통합, 공존 등 종교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살펴본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는 강사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내용과 실천 전략'에 대해 들려준다. 이어 이도훈 한양대 교수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교의 실천 전략', 오은영 성결대 교수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독교의 실천 전략'을 발표한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정은주·조재신·송오식 전남대학교 수, 임용선 전주대학교 수, 이혜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의 062-530-391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男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女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부처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男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 女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명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성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